

세계는 지금...

국제 사진 뉴스

출처: 신화넷



수단, 약 1,300 만명 어린이 식량 불안정 상태

17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회)는 무력충돌의 영향으로 수단의 인도주의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약 1,300만명 어린이들이 심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하마스: 이스라엘이 새 조건 추가 않으면 휴전 합의 가능

팔레스티나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휴전과 인질 교환 합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서 7.3 급 지진

17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7.3 급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건축물이 파손되었다. 그중에는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고급 판무관 공서 건물도 포함되었다. 이 지진으로 중국 국민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이날 바누아투 수도 포트빌라에서 찍은 파손된 차량.

새해맞이 찬란한 불빛쇼

새해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지 도시들에서는 반짝이는 불빛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16일, 일본 도쿄의 불빛쇼.



15일, 뽀르뚜갈 리스본에서 카툰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빛쇼를 즐기고 있다.



15일, 러시아 산크트-페테르부르크의 불빛쇼.



15일, 미국 시카고의 불빛쇼.

이스라엘, 골란고원 인구 두배 증가 계획

이스라엘정부는 자들이 점령한 골란고원의 거주 인구를 두배로 늘리기 위해 약 1,100만팔라 규모의 계획을 비준하였다고 총리관공실이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이스라엘군 차량이 골란고원 군사 완충지대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메히꼬 제3대 도시 몬테레이

몬테레이는 메히꼬 동북부 누에보레온주의 수부이자 메히꼬의 제3대 도시이다. 공업과 상업 활동이 번영하기로 유명한 몬테레이시는 메히꼬-미국 국경 통상구인 블라레도와 200여키로미터 상거, 차로 몇시간이면 미국의 텍사스주에 도착할 수 있어 메히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발판이 되고 있다.

사진은 12일 찍은 메히꼬 제3대 도시 몬테레이의 도시 풍경이다.



수리아 다마스쿠공항 운항 회복

18일, 수리아 수도의 다마스쿠공항이 12월초 수리아 정세가 급변한 후의 첫 운항을 회복했다. 수리아령공은 국제항로에 개방했지만 다마스쿠공항은 현재 국내항로만 회복했다.

